

고정관념 깨는 상표 출원, 사람들의 마음도 끈다

브랜드가 상품구매력을 좌우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종래 문자로 된 상표의 경우 간결한 명사형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요즘에는 고정관념을 깨는 새로운 형식의 상표 출원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 '시처럼 맑은 우유(유제품), 공룡이 마셨던 물(청량음료), 잠자리가 노닐던 쌀(곡물), 아빠와 함께(가구), 모자가 아니고 브래지어입니다(서적류), 좋은 수가 있어(문구류), 소중한 대해줘 나를(액세서리), 여보 사랑해!(의료보조기기), 아침이슬 가득한 치과(의료보조기구), 자! 인생을 역전하자(금융업), 미용실 오다(미용업), 저녁바람이 부드럽게(요식업)' 등과 같이 서술적이고 감정적인 문구로 된 상표들이 다수 출원되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과거에는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던 이같은 유형의 상표 출원이 2003년 한해에 들어서만도 11월말 현재 6백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상표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매년 상표 출원이 10만 여건에 달하는 현실에서 이미 등록된 상표를 피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좁아진 면도 없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사회 환경의 변화와 함께 수요자들의 상표선택에



▲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등장하고 있는 이색 상표는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진다.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경쟁자들의 브랜드와 차별화하면서 보다 직접적으로 수요자의 감성에 어필할 수 있는 상표들을 발굴해 내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러한 유형의 상표들은 특히, 젊은 세대의 감성에 호소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자칫 단순한 구호나 인사말, 유행어로 된 것이거나 단순히 상품, 서비스의 품질, 효능 등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상표법에 의해 등록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대 한상진 씨 HP후원 '젊은 발명가상' 수상

서울대 공대는 지난달 15일 응용화학부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한상진 씨(29)가 경제 주간지 파이스턴이코노믹리뷰가 주관하고 휴렛팩커드(HP)가 후원하는 '젊은 발명가상(Young Inventors Awards 2003)' 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네번째를 맞는 이 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학생들의 연구 결과 중 창의성·독창성·실용성 등을 평가해 시상하며 한국인으로는 한 씨가 첫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 씨의 연구 성과는 연료전지 촉매 담지체로 이용되는 새로운 탄소재료를 개발한 것으로 기존의 재료에 비해 저렴한 방식으로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창안해 냈다.

이같은 한 씨의 연구결과는 화학 분야 권위자인 독일화학회지에 게재됐다.

특허청 특허심사 인력 늘린다

특허청(청장 하동만)은 지난해 12월 3일 지방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식재산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각 지역에 설치, 운영 중인 특허정보지원센터를 이달부터 지방지식재산센터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에 설치된 특허정보지원센터는 지역상공회의소 산하 15곳과 발명진흥회 산하 3곳, 특허넷 시범대학 7곳 등 모두 30개소에 이른다.

지방지식재산센터는 종전 특허정보지원센터에서 제공하던 특허정보 서비스 외에 기술개발단계부터 권리출원, 사업화까지 지식재산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한국발명진흥회와 지방자치단체, 대학과 유기적인 특허협력체제도 구축할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방지식재산센터의 종합서비스시스템 구축으로 지방중소기업과 개인발명가, 대학 등이 기술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특허 서비스를 한층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CD로 PCT 국제출원 할 수 있다

특허청은 올해부터 PCT 국제출원도 전자출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국내출원에 대하여는 이미 '99년부터 전자출원을 시행하여 왔으나 PCT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이를 관장하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전자출원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 않아 그동안 시행하지 못하다가, WIPO에서 PCT 전자출원 소프트웨어인 'PCT-SAFE'를 개발하여 지난해 12월에 배포를 개시함에 따라 PCT 전자출원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PCT 전자출원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WIPO에서 개발, 보급하는 PCT-SAFE 외에도 전자출원된 파일을 접수하고, 하자가 없는지를 전자문서상에 기록하여 WIPO에 송부하는 일련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최근 이러한 준비를 완료하여 지난달부터는 우리나라, EPO(유럽 특허청), 핀란드

등 3개국에서 국제출원이 전자상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WIPO에서는 PCT 전자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PCT-SAFE를 이용하여 전자출원을 하는 경우 1백20만원의 출원료 중에서 약 20%인 25만원을 감면해주기로 하였는데 한국이 WIPO와 동시에 전자출원을 접수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에 따라, 국내출원인은 시행초기부터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내 연간 PCT 출원건수는 3천건 정도이므로, 이번 PCT 전자출원 시행으로 연간 약 7억여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특허청에서는 현재 인터넷을 이용한 PCT 출원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며 금년말부터는 PCT 국제출원도 국내출원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PCT 전자출원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특허청 정보개발담당관실(최일승 사무관, 042-481-5094)로 연락하면 된다.

[기사의의]
 (사)한국여성발명협회
 (02)538-2710



이들이라면 한국여성발명협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국내 우수기업 중에서도 최고의 품질과 제품성이 인정되는 오직 1개 기업에만 부여되는 인증제도입니다.

Charcoal(숯)+carbon(탄소)+나(我)의 합성어로 숯을 대한다. 즉, 탄소의 결정체인 '숯에 있는 수많은 효능이 사용하는 고객과 한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숯의 신비 =

Carbona 카보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무턱대고 굽지마십시오!

카보나는,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발생되므로 건강에 좋습니다
 카보나는, 연기가 없고 냄새를 제거하므로 공기를 정화시킵니다
 카보나는, 고기맛을 좋게하고 사용후 불판을 쉽게 닦을 수 있습니다

여과작용 · 탈취작용 · 습도조절작용 · 해독작용 · 정화작용 · 원적외선 및 음이온 발생 · 혈액순환

카보나는 천연 참숯을 원료로 만들었습니다

www.isdigital.co.kr

ISDigital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29-8호
 TEL.(02)567-8080 FAX.(02)539-4600

‘100대 우수특허제품 대상’

특허 기술 사업화에 성공한 제품과 기업 발굴, 육성

지난달 15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제2회 100대 우수특허제품 대상’ 시상식이 하동만 특허청장, 한미영 한국여성발명협회장, 정태련 대한변리사회장, 유영기 한국특허정보원장 등 내빈과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경쟁력 있는 국내 우수 특허 기술을 장려하고 특허 기술의 사업화에 성공한 제품과 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한국일보사가 제정한 ‘제2회 100대 우수특허제품 대상’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부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사회에 발맞추기 위해 추진되어 왔다.

지난 1년간 각부면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 고려대학교 김동기 교수)은 특허 기술을 활용하여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본상 수상업체를 선정했다. 수상업체 중 종합대상을 받은 ㈜케이씨팩(대표이사 권봉수)의 이산화탄소 표면 세정기는 세계 최초 특허 등록을 통해 세계시장을 공략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하동만 특허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이번 사업은 민간 분야의 기술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한 우수제품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판로개척의 폭을 넓혀주고 국민들에게는 발명과 특허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하동만 특허청장이 ‘이산화탄소 표면 세정기’로 종합대상을 수상한 ㈜케이씨팩 권봉수 대표이사에게 시상하고 있는 모습.

듀오백코리아, 독일로부터 특허권 완전 인수

건강용품 업체인 듀오백코리아(대표 정해창)는 기능성 의자인 듀오백의 특허권을 독일 의료용 의자개발 회사인 그랄사로부터 완전히 인수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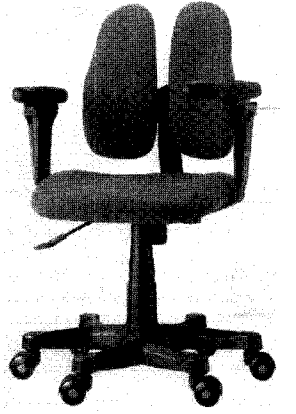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듀오백에 대한 특허사용권은 듀오백코리아가 완전히 보유하게 됐고 지금까지 그랄사에 판매 로열티를 지급한 듀오백코리아는 앞으로 거꾸로 그랄사로부터 로열티를 받게 된다.

듀오백코리아의 이번 특허권 인수는 전 세계적으로 듀오백 기술의 상용화에 앞장선 듀오백코리아의 사업능력을 원래 특허권자인 독일의 브뤼니히 교수가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인수조건은 듀오백코리아가 지난 99년 15년간의 전용실시권을 10억원에 확보한 후 남은 기간에 지급해야 될 35만

유로(한화 약 5억원)에 양도받기로 합의했다.

이번 듀오백 특허권 인수로 듀오백코리아는 로열티 비용 배제에 대한 생산 원가 절감을 기대하고 있으며 해외 수출을 위한 가격 결정력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듀오백코리아는 앞으로 전세계적인 듀오백에 대한 특허사용권을 전면 보유하게 되어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것으로 보여진다. 사진은 듀오백코리아가 출시하고 있는 사무용 의자.

한·미 ‘인터넷 경매’ 특허분쟁 조짐

‘인터넷 경매’ 방식을 둘러싸고 한·미 전자상거래 업체 간 비즈니스모델(BM) 특허권 분쟁이 일어날 전망이다.

미국계 인터넷 경매업체인 옥션은 최근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지난달 초 오픈한 경매 서비스 ‘오픈마켓’이 자사의 특허 일부를 침해했다며 다음측에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항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서비스개시 한달을 넘기지 못하고 지난달 12일부터 ‘오픈마켓’ 서비스를 중단했다.

옥션은 또 작년 말부터 한국의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마켓플레이스’를 표방하며 자사의 경매 모델을 침해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판단, 다음에 취한 조치를 업계 전체로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국 최대 인터넷 경매업체이자 처음으로 관련 비즈니스모델을 선보인 옥션이 특허를 무기로 ‘진입 장벽 쌓기’에 나선다면 온켓이나 G마켓 등 이미 서비스를 시작한 업체나 LG이숍 등 서비스를 준비한 업체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옥션의 이번 조치는 본사인 미국 e베이측 주도로 이뤄졌으며 다음측에 특허 침해 사실을 통보하기 전 3개월 동안의 자체 모니터링 과정을 거치는 등 치밀한 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옥션은 자체 법무팀을 통해 최종 법률 심의를 거쳐 지난달 초 이를 다음에 통보했으며 특히 오픈마켓

서비스 중 ‘질의 응답(Q&A)’과 ‘상품 등록 코너’의 프로그램이 자체 사이트를 도용한 흔적이 짙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마켓 운영책임자인 디앤샵 사업부의 임방희 대표는 ‘특허 침해 부분은 모르는 일’이라며 ‘오픈마켓은 다음의 비즈니스 커뮤니티 카페인 ‘비즈카페’의 연장선상에서 시작했으며 지난 한달간 운영한 결과 사용자 환경, 물품 카테고리 분류 등을 개편할 필요가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배경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서비스 중단이 옥션이 특허를 문제 삼았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옥션측은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옥션의 한 관계자는 ‘일부 사이트를 중심으로 시장 조사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한 것은 사실지만 e베이 및 한국기업들의 상황 등을 감안해 아직은 구체적으로 언급할 단계가 아니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음커뮤니케이션 뿐 아니라 일부 업체도 옥션의 경매 모델과 관련해 특허 침해 소지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특허 문제를 공론화할 뜻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이번 옥션의 조치에 대해 온켓의 이금룡 사장은 ‘이미 일 반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특허권을 주장하는 것은 전체 인터넷이나 전자상거래 시장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며 잘라 말했다.

| 책 속의 이야기⑦ |

보이는 기쁨을 선물한 여자, 그녀는 발명가

‘우리 협회에서는 1980년 이래 시력을 회복하기 위한 ‘자동화된 작업 라인’ 또는 ‘건강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수술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환자는 여러 의료 기구를 사용하게 되며 여러 의사들이 환자들과 함께 합니다. 전형적인 수술 절차는 크게 다섯 단계로 나뉘어지는데 각각의 단계에서는 그 분야에서 실질적인 경험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전문가가 함께 하며 하루에 1백회에서 1백20회 가량의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스크바 안과 국소수술 연구협회에 찾아오는 모든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계속된다. 이 연구협회는 도심에서 20여마일 떨어진 숲의 끝에 자리잡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안과의사이며 이 협회의 총 감독 페오도로프 박사가 이 수술 방법을 발명하였다. 그리고 페오도로프 박사와 동료들은 백내장, 근시, 녹내장과 그 밖의 안과 치료를 위한 새 수술기법 개발에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1985년 6월 21일 협회의 강의실에는 3백여명의 관중들이 모여들었다. 페오도로프 박사와 발명과 발견 주 위원회 의장이며 세계지적소유권기구 감독대리인 나야슈코프와 최고 정치인, 과학인들이 함께 했다. 1970년 이래 백내장 수술과 사시 교정 책임자를 지내온 엘레오노라 에고로바 의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하 인사를 받았다. 이번 모임은 에고로바에게 시상하고 그녀에게 세계지적소유권기구의 금메달을 수여하기 위

해 소집되었다. 수만 명의 여성들이 과학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소련과 같은 나라에서 단지 한 명의 여성을 선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에고로바는 발명가다. 그녀가 안과수술 분야에서 이룩한 가장 큰 공헌은 외상 백내장 수술과 안구이식 이용, 그리고 현대적인 기술향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 그 수술은 각막, 홍채, 수정체, 유리체에 대한 작업과 안구내 렌즈 이식과 같은 작업이 포함된다. 그녀의 연구 작업은 6천번이 넘는 수술에 기초한 결과다.

에고로바는 소련의 여러 도시에서 수많은 의사들을 교육시켰는데, 그녀의 조사 방법은 소련 내 25개 메디컬센터와 병원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소련 안과학의 여왕으로서 에고로바는 많은 작위와 상을 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상은 1976년에 받은 ‘붉은 별 노동자 훈장’으로서 이것은 레닌 다음 가는 높은 위치에 해당하는 서열이었다. 에고로바는 프랑스와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강의하고 과학 심포지엄에 참석하며 많은 수술을 집도하기도 했다.

의사로서 에고로바는 나름대로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항상 환자를 수술하고 치료할 때마다 나의 사랑을 그들에게 조금씩 준다. 그리고 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면 그 사랑은 내게 돌아와 더 많은 힘이 된다.’